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유형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고찰*

강병창**

〈차 례〉

1. 들머리
2. 논의의 배경과 대상
   1) 문제의 성격
   2) 기존의 논의와 문제점
3. 명사+명사 합성어의 은유적 의미구성 유형
   1) 수식부가 은유적인 합성어: X(→A)-Y
   2) 수식부가 머리를 은유하는 합성어: X→Y
   3) 머리가 은유적인 합성어: X-Y(→B)
   4) 수식부와 머리가 은유적인 합성어: X(→A)-Y(→B)
   5) 전체가 은유적인 합성어: XY(→Z)
4. 마무리와 전망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명사+명사 합성어에서 수식부와 머리가 나타내는 두 개념의 결합에 의한 의미구성에 은유적 개념화 과정이 개입하는 양상을 유형 별로 고찰하는 데 있다. 합성어는 문법적 구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HK교수

성과는 달리 의미관계 표시가 없이 단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구성요소 간의 의미관계가 아주 다양하며, 여기에 은유가 개입될 때 의미구성 관계는 매우 복잡해진다. 은유적 XY 합성어에 대한 종래의 접근은 주로 [Y는 X이다]라는 도식(X→Y)[1]의 개념적 은유에 주목하고 X가 은유적 이미지를 Y에 투사하는 속성부여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X와 Y의 관계적 의미연결을 함께 고려할 때, 은유가 작동하는 구성요소는 X뿐만 아니라 Y일 수도 있고 X, Y 모두 일 수도 있으며, XY 개념결합체 전체가 은유의 근원영역이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X(→A)-Y, X→Y, X-Y(→B), X(→A)-Y(→B), XY(→Z)로 표시할 수 있는 이 유형들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을 한국어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동되어 온 X(→A)-Y 유형과 X→Y 유형의 구분에 주력하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XY(→Z)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제어: 합성, 명사+명사 합성어, 은유적 합성어, 개념적 은유, 의미구성, 개념결합, 개념적 혼성

1. 들머리

조어(word-formation)의 한 방식인 합성(compounding)은 인지적으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존 개념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언어현상이다. ‘옛것’을 서로 연결지어 ‘새것’을 얻는 이러한 합성의 창의성은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1) [X→Y]는 근원영역(X)에서 목표영역(Y)으로의 매핑(사상)을 나타내므로, [X는 Y이다]가 아니라, [Y는 X이다]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시스템 원리에 기댄다고 할 수 있는데, 합성어 전체의 의미는 단순히 부분 요소들 의미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창발(創發, emergence)'한 결과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러한 합성은 한 언어의 어휘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사용에서 임시적으로 지칭과 명명을 하는 데도 긴요하게 쓰인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합성어의 의미구성, 그 가운데서도 은유적 의미구성 관계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언어 간 특성 차이에 따른 합성의 보편적 규정 문제를 비롯하여 합성과 파생(derivation)의 구분 문제는 여전히 난점으로 남아있지만(Lieber & Štekauer 2009), 본고에서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명사+명사 합성어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명사+명사 합성어는 형태적 구성은 매우 단순하지만 전체 의미구성에서 두 구성요소의 기능과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흥미를 끄는 연구대상이 된다. 언어표현의 의미는 언어단위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자의 정신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지언어학의 기본 입장(Radden et al, 2007: 1)에 비추어 볼 때, 합성명사의 의미는 단순히 구성요소의 개별 의미와 그 합으로부터 결정되지 않으며, 구성요소들은 해석의 '실마리(prompt)'만 되어 줄 뿐 훨씬 풍부하고 세밀한 개념적 표상은 인지과정에서 구성된다. 서로 다른 두 개념이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개념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인지심리학 또는 심리언어학에서 '개념결합(conceptual combination)'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Ran & Duimering, 2009 참조).

본고에서는 합성어 전체의미와 구성요소 의미 사이의 관계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의미관계에 따른 종래의 유형 구분(예컨대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융합' 합성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유적 합성어에 초점을 맞춘다.

은유적 합성어, 환유적 합성어, 은유-환유 상호작용적 합성어로 나뉠 수 있는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성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합성어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은유적 개념화 과정이 작용하는 은유적 합성어에만 국한시켜 그 세부 의미구성 유형을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논의의 배경과 대상

1) 문제의 성격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성어가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 되는 점은 단순한 형태구성 속에 매우 복잡한 의미구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인 논의들은 대체로 합성어의 의미가 단순히 개별 구성요소들의 의미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한 예스페르센(Jespersen, 1954/2007)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문제의 성격을 잘 요약해 준다.

> 합성어는 두 사물 또는 관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지만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문맥이나 그 외의 것을 통해 추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 합성어에 매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 합성어에서 보게 되는 논리적 관계들을 만족스럽게 모두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Jespersen, 1954/2007: 137-138).

명사(X)+명사(Y) 합성어(XY 합성어)는 두 직접 구성성분이 논리적-의미적 관계 표시 없이 한 의미단위로 결합한 것인데, 이러한 '명세 부족(underspecification)'은 X와 Y 사이의 의미관계가 인

지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채워지게 된다. 예컨대 '집일', '집나무', '집고생'은 '집에서의 일', '집을 위한 나무', '집 없는 고생'이 의미관계 기반이 된다. '술집', '꽃집', '이불집'은 'X를 파는 Y'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방석집'은 방석을 파는 집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같은 X라도 Y에 따라 의미 및 의미관계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합성어의 전형적인 속성이다. 예를 들면 '꽃병'과 '꽃신'의 '꽃'은 각각 실제 꽃과 꽃모양 무늬를 나타냄으로써 지칭되는 사물의 성격이 다르다. '금반지'는 금으로 만든 반지를 지칭하지만, '꽃반지'는 꽃으로 만든 반지 모양의 것을 나타낸다. 물론 '꽃반지'는 상황 및 담화의 맥락에 따라서는 꽃 모양의 실제 반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

나아가 합성어의 전체 의미가 구성성분의 개별 의미로부터 결정되지 않고 인지적 보충을 통해 구성되어야 하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합성어 '바지 정장'은 그 구성요소들만으로는 이 옷이 여성 패션이라는 점을 표시해 주지 못한다(바지와 정장은 남성도 입는다). '칠판'은 교육 용도로 제작된 점을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다(칠을 한 판이라고 모두 칠판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합성어는 부분 의미의 합이 전체 의미를 이루는 완전 합성성(compositionality)보다는 부분적 합성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자체에 마련된 XY 합성어의 기본 의미는, 코세리우(Coseriu 1977: 50-51)도 지적했듯이, 'X와 관계있는 Y' 정도일 뿐이고, 그 세부 의미는 세상지식과 관습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예컨대 독일어 'Papierkorb'(<종이-바구니> → '휴지통')에는 '종이(Papier)와 관계있는 바구니(Korb)'라는 추상적인 의미만 주어져 있을 뿐 '종이를 위한 바구니', '종이로 된 바구니', '종이가 담긴 바구니'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독일어 언어공동체에서는 규범에 의해 첫 번째 해석('종이를 위한 바구니')이 선택되어 관습적 의미로 고정되었을 따름이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종이

바구니’는 대개 종이로 만든 바구니를 의미한다. 또 이와 유사한 ‘종이함’의 경우에는 종이가 함과 관련하여 함의 재료일 수도 있고 함에 보관될 물건일 수도 있어서 명명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합성어 자체의 이러한 의미적 잠재성과 불확정성을 전제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요소가 은유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합성어 의미구성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예컨대 합성어 ‘머리기사’, ‘호랑이 선생’의 경우를 보면 ‘머리[頭]와 관계있는 기사(記事)’, ‘호랑이와 관계있는 선생’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하여 의미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어렵다. ‘신문 첫머리의 중요 기사’, ‘엄하고 무서운 선생’이라는 은유적 실제 의미가 도출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인지과정이 상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단순히 ‘머리와 관계있는’, ‘호랑이와 관계있는’이라는 규정으로는 은유적이 아닌 ‘자구적(literal)’인 의미 해석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머리에 관한 기사’, ‘호랑이를 가르치는/전공하는 선생’이라는 해석이다. ‘머리기사’, ‘호랑이 선생’과 같은 XY 합성어가 은유적 의미로 이해되는 과정에는 ‘X와 관계있는 Y’보다는 ‘X로 은유되는 것과 관계있는 Y’ 또는 ‘X로 은유되는 Y’ 같은 좀 더 복잡한 도식이 끼어든다. 그리고 X와 Y 사이의 관계가 비명시적인 XY 합성어에서 X가 은유적으로 이해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Y가 은유적일 수도 있고, X와 Y가 모두 은유적일 수도 있다. 또한 XY 합성어 전체가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은유적 합성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성어의 의미구성 원리와 상관적이거나 독자적인 원리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짐작된다.

2) 기존의 논의와 문제점

합성어의 의미관계나 의미구성에 대한 종래의 언어학적 분석은 대체로 합성어 전체 의미와 관련하여 X와 Y 사이에서 보이는 의미관계의 유형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가능한 의미관계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전자의 예로는 합성어를 전통적으로 '한정(determinative)', '소유(possessive)', '대등(copulative)' 합성어(또는 국어학에서 흔히 언급되는 '종속', '융합', '대등' 합성어)로 구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한정 합성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서 X와 Y 사이에 의미적 종속 관계가 성립하여 X가 Y를 의미적으로 수식/한정하는 합성어이다. 이러한 X(수식부)-Y(머리) 합성어는 의미적으로, 곧, 'X와 관계있는 Y'('일종의 Y')로 이해되는 이른바 '내심적(內心的, endocentric)' 합성어가 된다. 둘째, 소유 합성어는 구조적으로는 한정 합성어와 동일하지만 그 전체 의미가 Y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XY 합성어로 지칭되는 대상은 XY의 자구적 의미가 나타내는 지시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노랑머리'는 노란 빛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XY의 의미가 Y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유 합성어는 흔히 '외심적(外心的, exocentric)' 합성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셋째, 대등 합성어는 X와 Y 사이에 의미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성립하여 이 둘이 병렬적으로 합해져 의미가 형성되는 합성어이다(예컨대 '시인교수', '의사남편', '침대소파/소파침대'; '마소', '앞뒤').[2)]

합성어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은 주로 한정 합성어에 집중되었고, 특히 X와 Y 사이의 의미관계 분류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Downing,

2) 본고에서 합성명사는 사전에 수록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연어적 구성도 포함된다.

1977; Levi, 1978; Warren, 1978, Ortner & Ortner, 1984; 이민우 2011 등). 예컨대 레비(Levi, 1978)는 영어에서 15개의 의미관계(CAUSE, HAVE, MAKE, FOR, BE, USE, ABOUT 등)를 제시했으며, 오르트너 및 오르트너(Ortner & Ortner, 1984)는 독일어에서 20가지 주된 부류를 설정하고 그 하위그룹까지 포함해서 모두 58가지 유형을 수립한 바 있다. 이보다 간단하게는, 예컨대 이민우(2011)가 합성어 구성요소들의 의미관계를 크게 두 가지, 곧 '범주 내적 관계'와 '범주 외적 관계'로 나누고, 범주 내적 관계에서 하위 유형 세 가지(동의관계, 대립관계, 부분-전체/전체-부분 관계)를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합성어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범주 외적 관계의 세부 규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된 상당수의 은유적 합성어들이 자구적 합성어들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의미구성 상의 차별성은 별도의 설명을 요구한다.

합성명사 의미론 연구에서 은유적 합성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은유, 환유 등 비유 현상이 개입되는 합성어는 합성성 원리에 따른 예측가능성에 기반을 두는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유적/전의(轉義)적 합성어(또는 '융합' 합성어)는 전통적으로 '비합성적'인, '관용적'인,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들에서도 동기관계(motivation)를 찾으려고 하는 인지언어학의 틀에서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지훈(1999)은 "합성과정에서 각 구성요소에 은유나 환유가 작용하면서 의미변화가 일어나는"(23쪽) 전의 합성명사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레이코프 및 존슨(Lakoff & Johnson, 1980)의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분석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합성명사 XY에서 X가 지칭하는 개념이 근원영역이 되어 목표영역인 Y 개념에 매핑(mapping)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매핑되는 합성과정이 은유 유형(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 사물 은유) 별로 제시되고 있다. 그

러나 'X→Y', 'X←Y' 매핑 외에도 가능한 다른 매핑 유형, 이를테면 'X-Y(→Z)', '[X(→A)]-Y', 'X-[Y(→B)]' 등(자세한 것은 제3절 참조)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X와 Y 사이의 관계적 연결 의미와 은유적 매핑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도 결여되어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합성어의 비유적 의미구성과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논의는 무엇보다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Coulson, 2000; Fauconnier & Turner, 2002 등)에 기반을 둔 연구들일 것이다. 영어 합성어와 관련한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는 벤체쉬(Benczes, 2006)[3]를 들 수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의 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몇몇 있다(예컨대 이종열, 1999; 김동환, 2013). 종래의 개념적 은유 매핑을 개념적 혼성의 하위유형으로 통합시킨 개념적 혼성 이론은 매우 광범위한 언어 현상에 적용되고는 있으나, 합성어의 의미론에 적용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성어의 의미구성을 기술할 때, 입력공간들로부터 혼성공간이 얻어지는 개념적 통합의 인지과정이 주된 관심사가 됨으로써 상징적 구성체(construction)으로서의 언어 현상 자체에 대한 기술이 소홀하게 된다. 입력이 되는 정신공간의 설정과 혼성공간의 구성에서도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X-Y 합성어와 Y-X 합성어의 구성적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X에 의해 촉발되는 정신공간과 Y에 의한 정신공간의 비중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도 문제이다.[4]

---

3) 벤체쉬(Benczes, 2006)는 은유적 및 환유적 합성어를 통칭해서 '창의적 합성어(creative compound)'라고 부르고 있다. 이 용어는 자칫 비유적이지 않은 자구적 합성어는 창의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예컨대 자구적인 '벼룩시장'(벼룩이 들끓을 정도의 고물을 파는 시장)이 은유적인 '번개시장'보다 창의적이지 않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분트가르트 등(Bundgaard et al,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유형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는 벤체쉬(Benczes, 2006: 89-140)와 김동환(20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체쉬는 다섯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데, 곧 X(수식부)-Y(머리) 합성어에서 개념적 은유가 (i) X, (ii) Y, (iii) X와 Y 모두, (iv) XY 합성어 전체에 작동하는 유형과 (v) X와 Y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유형이다. 반면에 김동환(2013: 14)은 합성어의 머리가 은유적인 (ii)와 (iii)의 유형만 은유적 합성어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벤체쉬의 구분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각 유형에 대한 일반적 특성 규명 없이 선택된 몇몇 합성어에 대한 세부 분석에 치우치고 있고 일부 분석에서 보이는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유형 (i)과 유형 (v)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언급은 되어 있지만 세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형 (iv)의 특성도 함께 규명해 보려고 한다. 논의에 쓰일 예는 한국어의 명사+명사 합성어가 중심이 된다.

3. 명사+명사 합성어의 은유적 의미구성 유형

은유적 X(명사)-Y(명사) 합성어는 X가 수식부가 되고 Y가 머리가 되는 종속(한정) 합성어의 기본 의미구조에서 볼 때 은유가 적용되는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5)]

(1) a. 수식부가 은유적인 합성어: X(→A)-Y
b. 수식부가 머리를 은유하는 합성어: X→Y
c. 머리가 은유적인 합성어: X-Y(→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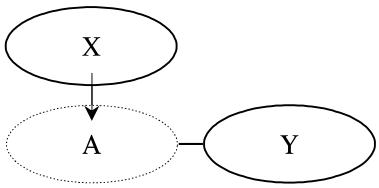
5) 은유적 합성어는 대체로 종속합성어 유형에 속하므로 이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d. 수식부와 머리가 은유적인 합성어: X(→A)-Y(→B)
e. 전체가 은유적인 합성어: XY(→Z)

여기서 화살표(→)는 은유적 매핑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표시하며, A, B는 각각 합성어 구성요소 X, Y가 촉발하는 근원영역이 지향하는 목표영역을 나타낸다. 이것은 언어적 대응 요소가 없으므로 괄호 속에 표시된다. Z는 합성어 전체의 자구적 의미가 촉발하는 근원영역을 지향하는 목표영역으로서 마찬가지로 괄호 속에 표시된다.

1) 수식부가 은유적인 합성어: X(→A)-Y

XY 합성명사에서 X가 은유적이고 Y는 자구적 의미 그대로 이해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수식부 X가 은유하는 의미가 다시 수식부가 되어 머리를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X가 Y를 곧바로 은유하는 것이다. 둘째 패턴은 아래 2)에서 독립적으로 다룬다. 첫째 패턴의 특징은 X가 은유하는 A와 Y 사이에 관계적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X(→A)-Y 유형 합성어

예컨대 합성어 '머리말'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가 은유하는 [(사물의) 앞 또는 위]가 다시 [말]을 수식하여 <(책, 논문

등의) 시작 부분에 하는 말(글)>이라는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 개념적 은유의 측면에서 보면, 이 합성어에는 [말(글, 이론)은 신체이다][6]라는 은유가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곧, 책이나 논문이 신체로 이해되고, 신체에 머리가 있듯이 책/논문에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머리말'은 <신체 : 머리 = 말(책/논문) : x>라는 식에서 x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X(→A)-Y 유형은 2)에서 살펴보게 될 X→Y 유형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머리말'을 <말은 머리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처럼 X에 의해 은유되는 개념이 Y 개념에 관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의미구성이 이루어지는 그 밖의 예로는 (2)를 들 수 있다.

(2) a. 모회사(母會社), 자회사(子會社), 아들마늘, 아들이삭, 딸세포
b. 어미바늘, 새끼바늘, 새끼손가락
c. 줄기세포, 꽃물

(2a)에서는 가족 내에서 구성원이 갖는 특정한 위치와 기능(부모자식 관계)이 은유로 작동하면서 이것이 Y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2b)에서는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2b)에서는 식물에서 구성요소의 기능이 은유로 작용하고 있다. '줄기세포'는 가지를 뻗게 하는 줄기의 기능이 은유로 작용하여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를 뜻하게 된다. '꽃물'은 <꽃을 물감으로 하여 들이는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고기를 삶아 내고 아직 맹물을 타지 아니한 진한 국물>('꽃국물'이라고도

6) 이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인 복잡체계는 인간의 신체이다](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Kövecses, 2010: 161)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앞으로 대상언어는 ' ', 개념과 개념적 은유는 [ ], 의미표현은 < >로 표기한다.

함)[8]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꽃이 식물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고 핵심적인 것처럼, '꽃물'은 정수가 되는 국물을 뜻한다.

또한 X(→A)-Y 유형의 합성어에서는 Y의 개념 프레임(frame)에서 구체화되길 요구되는 세부 차원(모양, 재료, 위치, 기능, 목적, 방식 등)의 빈자리가 X가 은유하는 A 개념에 의해 채워짐으로써 의미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풀뿌리 민주주의'는 '풀뿌리'에 의해 은유되는 [민중]이 [민주주의]를 규정한다.[9] 민주주의는 작동되는 방식이 다양한데, 대의제에 의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중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한 대중적 방식이 '풀뿌리'에 의해 은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부화되지 않은 Y 개념 프레임을 은유적 수식부를 통해 한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합성명사들은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a. 꽃구경
b. 벼락공부, 벼락부자, 도둑장가
c. 번개시장, 번개모임, 거북(이)운행

(3a)의 '꽃구경'은 자구적으로 해석되어 <꽃을 보고 즐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꽃'이 <아름다운 여인>을 은유하고 [구경]의 프레임에서 관심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미녀를 바라봄>을 뜻

8) 이와 유사한 의미관계의 합성어로는 '꽃국'(<담근 술이 익었을 때 맨 처음 떠낸 맑고 진한 술>), '꽃소주'(<소주를 고아서 맨 먼저 받은 진한 소주>) 등이 있다.

9) 익명의 심사자는 은유와 다의성의 관계 및 구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머리말'의 '머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성격이 서로 다름을 다의성에 기대어 지적하고 있다. '머리'와 [사물의 앞/위], '풀뿌리'와 [민중]의 관계는 모두 은유에 기초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은유의 관습화로 사전에 다의어로 수록된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아직 관습적으로 정착되지 않아서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낱말의 다의성은 은유에 기반한 의미확장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하기도 한다. (3b)에서는 <매우 빠름>을 은유하는 '벼락'이 공부하는 방식과 부자가 된 경위를 규정해 주고 있다. '도둑장가'는 [도둑]의 <남몰래 함>을 부각시켜 [결혼] 프레임에 포함되는 <공개성>을 대체하게 하여 <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드는 장가>를 뜻하게 된다. (3c)의 '번개'도 <매우 빠름>을 은유하지만 여기에 <금방 사라짐>, <예기치 않음>의 의미가 더해져 '번개시장'은 <아침에 잠깐 섰다가 어느 틈에 파장이 되어 버리는 무허가 시장>을, 신조어인 '번개모임'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정해 빨리 갖는 모임>을 뜻하게 된다.[10]

그 밖에도 X(→A)-Y 유형의 합성어에서 X→A의 은유가 시각적 이미지의 유사성(닮음)에 토대를 둔 은유인 경우도 다수 있다. 은유가 서로 다른 개념영역 사이의 체험적 유사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때, 감각적 형태의 유사성은 은유 논의에서 빠트릴 수 없다.[11]

(4) a. 나팔꽃, 붕어빵, 곰보빵, 빵모자, 별사탕, 꼬리톱, 버섯구름, 우산버섯, 주걱턱, 무다리
b. 개미허리, 메기입, 사자코, 개구리눈, 고사리손
c. 강아지풀, 호랑나비, 꽃신, 고추잠자리
d. 나비물, 나비잠, 새우잠, 가재걸음, 곰춤

(4a) 합성어들에서는 X의 형태가 Y의 형태와 유사함으로써 Y의 외형적 속성이 규정된다. (4b)는 자구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동물 X(의 Y 대응 부분)가 사람의 Y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머허리'는 <개미의 허리와 같은 사람의 허리>로 이해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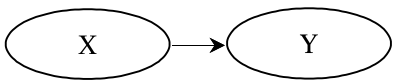
10) 이와 유사한 구성의 합성어로 '반짝세일'을 추가할 수 있다.

11) 이미지 은유(image metaphor)에 관해서는 레이코프 및 터너(Lakoff & Turner, 1989: 89-96)를 참조할 수 있다.

다. 이와 유사하게 (4c)에서도 X에서는 부분적 이미지가 취해지는데, '강아지풀'은 <강아지의 꼬리 같이 생긴 풀>, '호랑나비'는 <호랑이의 털 무늬를 닮은 무늬를 한 나비>를 의미 기반으로 한다. '꽃신'은 <꽃 모양의 무늬가 있는 신발>, '고추잠자리'는 <고추의 붉은 색을 띤 잠자리>라는 의미관계를 보인다. 한편 (4d)의 합성어들은 X의 닮음 이미지에 의해 Y 개념 자체가 규정된다기보다는 Y 프레임이 포함하는 특정 차원이 형태적으로 특정화된다. '나비물'에서는 뿌려지는 물의 형상이 나비 모양과 같은 것(<옆으로 쫙 퍼지게 끼얹는 물>)이고, '나비잠'에서는 잠을 자는 이의 모습이 나비 형상과 같은 것(<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이다.

2) 수식부가 머리를 은유하는 합성어: X→Y

X(→A)-Y 유형과 달리, 수식부 X로부터 머리 Y로 직접 은유적 매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X→Y 유형의 합성어도 있다. 말하자면 X 개념이 은유의 근원영역이 되고, Y 개념이 은유의 목표영역이 됨으로써 XY 합성어는 인지적으로 X를 통해 Y를 이해하는 개념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X→Y 유형 합성어

이 유형의 합성어는 <Y는 X이다>라는 전형적인 은유 표현으로 치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의미관계 패턴을 따른다. X(→A)-Y 유형에서는 X(로 은유된 A)가 Y의 부분적 측면을 세부화하는 반면에,

X→Y 유형은 X가 Y에 대해 은유적으로 전반적 성격 규정을 한다고 할 수 있다.[12] 예컨대 '호랑이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호랑이야!"와 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생님]의 전반적인 속성이 [호랑이]의 속성에 대응한다(<호랑이의 포효> - <호통>, <호랑이의 용맹> - <카리스마>, <동물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함> - <무서움> 등등). 여기에 작동하는 은유는 레이코프 및 존슨(Lakoff & Johnson 1980)이 말하는 '구조화 은유(structural metaphor)'[13]라고 할 수 있다.

(5) a. 도둑고양이, 황소개구리
b. 황소바람, 고추바람, 가마솥더위, 도끼눈, 가시눈, 미끼상품
c. 총알택시

(5a)의 '도둑고양이'와 '황소개구리'도 X→Y 유형의 합성어로 간주할 수 있다. '저 고양이는 도둑이다'와 '저 개구리는 황소다'라는 풀어쓰기가 말해 주듯이, X와 Y의 행태의 유사성(<도둑 같이 몰래 다니면서 사람의 음식물을 훔쳐 먹음>, <황소 같이 큰 덩치를 하고 황소울음 같은 소리를 냄>)이 합성어 의미구성의 기반이 된다. (5b)의 '황소바람'(<황소 같은 바람>)은 바람의 행태가 동물의 행태에 비유되는 예인데, 황소가 거세게 돌진하는 이미지가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세참에 투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

12) 물론 이 경우 은유의 일반적 속성이 그렇듯이,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매핑은 전체적이지 이지 않고 부분적이다. X(→A)-Y 유형의 '나팔꽃'에서 '나팔'은 [꽃]의 프레임에서 형태 부분만 채워주지만, X→Y 유형의 '황소개구리'에서는 황소(X)의 전체 속성은 아니지만 일부 속성(크기, 울음소리)이 Y에 투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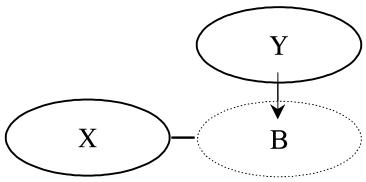
13) 구조화 은유는 추상적 개념이 일상 경험에서 익숙한 구체적인 프레임/시나리오(참여자, 구성요소, 단계, 시간적 순서, 인과관계, 목표 등)를 갖는 근원영역을 통해 구조화되어 개념화하는 것이다(Lakoff & Johnson, 1980: 14).

끼눈’에서는 도끼의 날처럼 생긴 눈이 아니라, 날카로운 날을 가진 도끼로 나무를 내리찍는 것이 매섭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람을 쏘아보는 것에 투사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밤늦게 손님을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는 택시>를 뜻하는 ‘총알택시’에서는 ‘총알’이 단순히 <빠른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의 이미지를 투사한다.

벤체쉬(Benczes, 2006: 91)는 ‘은유기반 수식부’ 합성어(본고의 X(→A)-Y 유형)와 ‘머리는 수식부이다’ 은유 관계 합성어(본고의 X→Y 유형)의 구분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벤체쉬는 X(→A)-Y 유형으로 다루어져야 할 상당수의 예를 X→Y 유형(예컨대 ‘zombie computer’)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설치된 상업광고판>을 뜻하는 ‘bandit sign’을 분석할 때, 무정물인 간판(‘sign’)이 유정물인 도적(‘bandit’)으로 의인화 은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Benczes, 2006: 118-119). 도적의 속성, 행태 등이 간판의 속성, 행태 등에 은유적으로 투사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는 범죄자의 측면이 광고판 자체에 투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곧, 광고판이 전달하는 내용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광고간판이 설치된 과정과 방식이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bandit sign’은 한국어로 ‘불법간판’[14]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판의 프레임(크기, 재질, 전달내용, 설치장소, 설치허가 등)에서 설치장소, 허가와 관련한 불법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곧, 이 합성어는 X(→A)-Y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4) 이것을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도둑광고’로 지칭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3) 머리가 은유적인 합성어: X-Y(→B)



<그림 3> X-Y(→B) 유형 합성어

X-Y(→B) 유형의 합성어는 <그림 3>으로 보인 것처럼 자구적인 X가 은유적인 Y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미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책벌레'는 <책과 관련된 벌레>, 이를테면 <책을 갉아먹는 벌레>를 뜻하지 않고, <책과 관련된, 벌레로 은유되는 존재>를 나타낸다. 근원영역 [벌레](Y)가 목표영역 [사람](B)에 은유적으로 투사되면, 벌레가 먹이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집중해서 파먹듯이, 사람이 어떤 일에 쉼 없이 집중하는 측면이 부각된다. 그 어떤 일이 [책]과 관련됨으로써 <지나치게 책을 읽는 데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구성된다.[15]

이러한 X-Y(→B) 유형의 합성어는 벤체쉬(Benczes, 2006: 96)도 지적하고 있듯이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유형의 은유적 합성어이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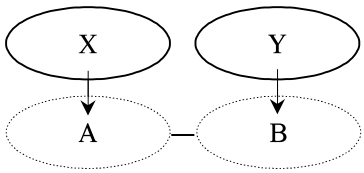
(6) a. 술고래, 밥도둑, 바람칼
b. 입씨름, 팔씨름, 눈싸움, 말잔치, 빚잔치, 난리굿, 교통지옥, 기업사냥
c. 꽃물결, 꽃보라, 꽃비, 꽃바다, 곡식바다, 별바다, 눈물바다, 웃음바다, 돈벼락, 웃음꽃, 이야기꽃

15) 이와 유사한 합성어로는 '공붓벌레', '일벌레', '돈벌레', '밥벌레' 등을 더 들 수 있다.

d. 병목, 바늘귀, 버선코, 상다리, 목젖, 산자락, 총부리
e. 하늘소, 땅강아지
f. 눈사람, 종이꽃, 눈꽃, 열꽃, 돌옷, 튀김옷, 칼집, 금싸라기
g. 볼우물, 손우물, 팔베개

(6a)는 X와 관련하여 특징적 행태를 보이는 존재(B)에 대해 Y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그 특징적 행동이 규정된다. '술고래'는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해 고래처럼 <물을 많이 들이키는> 속성이 부여된다. '밥도둑'은 <밥을 먹는 사람> 또는 <밥에 딸린 반찬>에 대해 도둑의 이미지(<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음>, <자기 몫이 아닌 것을 가져감> 등)를 투사시킨다. '바람칼'은 <바람을 가르는 칼 같은 것>으로서 새의 날개를 가리킨다. (6b)에서는 X가 관련되는 행위, 사건이 은유적 Y에 의해 규정된다. '입씨름'의 의미는 말하자면 <입으로 하는, 씨름 같은 행위>를 토대로 한다. (6c)에서는 X가 관련되는 집합적 현상이 Y의 은유적 이미지와 결합한다. 예컨대 '꽃물결'의 의미는 <꽃의 집합이 보이는 물결 같은 모습>을 토대로 한다. (6d)의 합성어들은 X의 특정 부위가 Y의 형상과 닮음을 의미구성의 토대로 한다. 예컨대 '병목'은 병에서 목처럼 생긴 부위를 지칭한다. (6e-f)도 시각적 이미지 은유에 기초하는 예들이다. '하늘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소처럼 생긴 동물>이 의미 토대가 되며 소의 뿔을 닮은 강력한 더듬이를 가진 곤충을 가리킨다. '볼우물'은 뺨에 있는 우물처럼 들어가 보이는 보조개를, '손우물'은 물을 뜰 수 있게 두 손을 우물 모양처럼 모은 것을 가리킨다.

4) 수식부와 머리가 은유적인 합성어: X(→A)-Y(→B)



<그림 4> X(→A)-Y(→B) 유형 합성어

수식부 X와 머리 Y가 모두 은유적인 합성어는 X가 은유하는 A와 Y가 은유하는 B가 개념적으로 결합되어 전체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X(→A)-Y(→B) 유형은 X와 Y가 개념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의미에 의해 다시 은유가 이루어지는 5)의 XY(→Z) 유형과는 구분된다.

X(→A)-Y(→B) 유형의 합성명사는, 영어의 경우 벤체쉬(Benczes 2006: 102)가 지적했듯이, 한국어에서도 생산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비생산성은 합성어의 두 구성요소가 은유적인 만큼 합성어 전체 의미가 은폐적이어서 수용자가 의미의 동기관계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데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체쉬(Benczes 2006: 103-105)는 이 유형의 두 가지 예로 'chicken hawk'와 'flame sandwich'를 들고 있는데, 전자는 <병아리를 잡는 매>가 아니라, 병아리에 의해 은유되는 <겁쟁이>와 매에 의해 은유되는 <군사적 강경파>가 결합하여 군대에 가거나 참전한 적이 없는 강경파를 가리킨다. 인터넷에서 쓰이는 신조어 'flame sandwich'[16]도 <불꽃과 관련되는 샌드위치>, 이를테면 <불꽃 모양의 샌드위치>가 아니라, 불꽃 튀기는 듯한 <신랄한 비판>과 샌드위치 같은

16)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ordspy.com/words/flamesandwich.asp>을 참조할 수 있다.

<3중 구조의 댓글>이 개념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곧, 하나의 댓글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평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견이 끼워지고, 끝에 다시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영어의 예는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사용 영역에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유형은 (7)과 같이 한국어 일상어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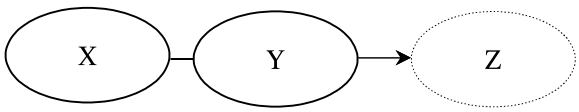
(7) a. 꿈나무, 불벼락, 칼바람
b. 꽃뱀, 꽃밭, 가시방석, 솜방망이
c. 앞가림, 쥐포수

(7a)는 X-Y 의미관계가 자구적이지 않으면서 X와 Y가 모두 은유적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꿈나무'는 '꿈'으로 은유되는 <희망/이상>과 '나무'로 은유되는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가 결합하여 <소질/재능 있는 아이>를 뜻하게 된다. '불벼락'은 X-Y(→B) 유형으로 보아 <불로써 (벼락처럼) 갑작스럽게 하는 공격>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이 <분노의 호통>을, '벼락'이 <세차게 내리치는 듯한 전달 행동>을 은유함으로써 이 양자가 연결되어 호된 책망을 뜻하게 된다. '칼바람'은 X→Y 유형으로서 <(칼처럼) 매섭고 독한 바람>으로도 해석되기도 하지만, X(→A)-Y(→B) 유형으로서는 '칼'이 은유하는 <권능에 의한 제거/박해>와 '바람'이 은유하는 <유행/휩쓺>이 결합하여 구조조정 등에 의한 감원을 표현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7b)의 '꽃뱀'은 <(꽃처럼) 알록달록한 무늬의 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꽃'이 은유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뱀'이 은유하는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가 결합하여 흔히 쓰이는 비유적 의미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꽃밭'도 비유적으로는 '꽃'(<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밭'(<모여 있는 곳>이다. (7c)의 '앞가림'은 <자신의 앞을 (차단물 등으로) 가림>이라는 자구적 의미

전체가 은유적 의미의 토대가 된다기보다는, ‘앞’이 은유하는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일>과 ‘가림’이 은유하는 <대처와 보호>가 개념적으로 결합하여 <제 앞에 닥친 일을 제힘으로 해냄>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7] ‘쥐포수’도 <쥐를 잡는 포수>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지만, 쥐로 은유되는 <하찮은 것>과 ‘포수’로 은유되는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개념적 연결로 이해될 수 있다.

5) 전체가 은유적인 합성어: XY(→Z)

XY(→Z) 유형의 합성어는 XY 합성어 전체가 갖는 자구적 의미가 은유의 근원영역이 되어, 언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목표영역 Z에 투사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합성어이다.



<그림 5> [X-Y](→Z) 유형 합성어

이 유형의 합성어는 X와 Y의 합성 과정에서 은유적 의미가 발생한다기보다는 X와 Y가 합성된 다음 자구적 의미로 쓰이던 것이 다시 은유적 의미로도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합성어들은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17) 익명의 심사자는 ‘앞가림’에서 ‘가림’의 자구적 의미가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도록 막음>이 아니라,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름>(여기서 확장된 의미는 <잘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가림’이 제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한 사리판단을 함의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가림’은 <막음>의 의미가 더 기본적이라 생각된다(<제 앞에 닥치는 것들을 막아 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에 대처함>). 이 점은 ‘가리다’의 연어 구성에서도 드러난다(‘시비/흑백/옥석을 가리다’ vs ‘앞/눈/결점을 가리다’).

(8) 가시덤불, 가시밭, 가위질, 갈림길, 개똥, 걸림돌, 겨울잠, 기름칠, 까치집, 돼지우리, 디딤돌, 떡고물, 맥주병, 먹구름, 메줏덩어리, 모깃소리, 몸부림, 묵사발, 물거품, 물귀신, 복숭아털, 불구덩이, 불장난, 살얼음판, 쇠사슬, 숨구멍, 연막전술, 입맛, 추풍낙엽, 코딱지, 콩가루, 콩나물시루, 호박꽃

이 유형의 합성어는 단일어가 은유적 의미로 확장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은유적 의미구성과 관련한 합성어 논의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아 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8)의 '가시덤불'은 말 그대로 <가시덤불>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이나 삶에 장애가 되는 역경을 은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구적 의미 전체 XY(<가시덤불>)가 배후에 있는 '이미지 수신자' Z(이를테면 <상황>)에 대한 '이미지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18] 그래서 확장된 합성어 '가시덤불 상황'과 같은 구성도 가능한 것이다.

4. 마무리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유적 합성명사는 은유가 작용하는 구성요소와 이들의 의미관계 양상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곧, 수식부가 은유적인 유형, 머리가 은유적인 유형, 수식부와 머리가 은유적인 유형을 비롯하여, 수식부와 머리 사이에 은유관계가 성립하는 유형, 그리고 합성어 전체가 은유적인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명사+명사 합성어에서 수식부와 머리의 사이의 관계가 동사에 대한 의미역할 관계에 토대를 두는 비교적 명시적인

18) '이미지 제공자(Bildspender)'와 '이미지 수신자(Bildempfänger)'는 바인리히(Weinrich, 1963)의 용어를 수용한 것이다.

해석의 합성어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수식부와 머리 사이의 의미 관계가 명시적이지 않으며, 여기에 은유가 작용하면 그 의미관계는 매우 복잡해진다. 명사+명사 합성어의 은유는 의미관계가 명시적인 구문('A는 B이다', 'A를 B하다' 등)에서의 은유와 달리 암묵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자구적으로도 은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XY 합성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X→Y 도식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은유 작용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세부 유형 구분은 X와 Y의 관계적 개념 연결을 함께 고려할 때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은유적 합성어는 다양한 잠재적 은유 관계를 내포함으로써 복잡한 사안을 매우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따라서 논의한 합성어 은유 유형들은 시대 변천과 문화 이동에 따른 신어 형성, 브랜드 네이밍 등과 관련해서도 재조명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성과 관련한 개념결합, 은유, 혼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 살펴보지 못한 환유적 합성어와 은유-환유적 합성어에 대한 논의도 후속연구에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동환, 「개념적 혼성에 입각한 은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성 탐구」, 『언어과학연구』 64, 언어과학회, 2013, pp. 1-24.

이민우, 「'명사+명사'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2011, pp. 235-257.

이종열, 「정신공간을 통한 합성어의 인지적 의미해석」, 『언어과학연구』 16, 언어과학회, 1999, pp. 483-504.

최지훈, 「전의(轉義)합성명사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Benczes, R.,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Bundgaard, P. F., S. Ostergaard, and F. Stjernfelt, "Waterproof Fire Stations? Conceptual Schemata and Cognitive Operations Involved in Compound Constructions", *Semiotica* 161-1/4, 2006, pp. 363-393.

Coseriu, E., "Inhaltliche Wortbildungslehre (am Beispiel des Typs 'coupe-papier')." In H. E. Brekle and D. Kastovsky (eds.), *Perspektiven der Wortbildungsforschung,* Bonn: Bouvier Verlag Herbert Grundmann, 1977, pp. 48-61.

Coulson, S., *Semantic Leaps: Frame-Shifting and Conceptual Blending in Meaning 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wning, P.,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4, 1977, pp. 810-842.

Fauconnier, G. and M.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Jespersen, O.,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 - Morphology,* London: Routledge, 1954/2007.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Lakoff, G. and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Lakoff, G. and M.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Levi, J. 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mplex Nominals,*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Lieber, R. and P. Štekauer, "Introduction: Status and Definition of Compounding." In R. Lieber and P. Štekau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oun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3-18.

Ortner, H. and L. Ortner, *Zur Theorie und Praxis der Kompositaforschung.* Tübingen: Narr, 1984.

Radden, G., K. Köpcke, T. Berg, and P. Siemund, “Introduction: the Construction of Meaning.” In G. Radden, K. Köpcke, T. Berg, and P. Siemund (eds.), *Aspects of Meaning Constr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007, pp. 1-15.

Ran, B. and P. R. Duimering, “Conceptual Combination: Models, Theories, and Controversies.” In S. P. Weingarten and H. o. Penat (eds.), *Cognitive Psychology Research Developments,*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2009, pp. 39-64.

Warren, B., *Semantic Patterns of Noun-Noun Compounds,* Göteburg: Acta Universitasis Gothoburgensis.

Weinrich, H., “Semantik der kühnen Metapher.” In A. Haverkamp (ed.), *Theorie der Metap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 pp. 316-339.

A Cognitive-Semantic Approach on the Meaning Construction Patterns of Metaphorical Noun-Noun Compounds

Kang, Byong-Cha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metaphorical meaning construction involved in Korean noun-noun compounds. The majority of recent cognitive analyses of compounding focuses on the aspects of conceptual blending or the metaphorical property attribution in typical modifier-head relation, whereby various types of metaphorical mapping within a constituent, between the constituents, and between the whole compound and its implicit head are ignored or not properly distinguished. Inspired by and based on the idea of Benczes (2006), this paper proposes five patterns of metaphorical meaning construction in compounding: X(→A)-Y, X→Y, X-Y(→B), X(→A)-Y(→B), and XY(→Z). It is attempted to clarify the frequently confused types X(→A)-Y and X→Y, and the relatively neglected type XY(→Z) is discussed in some detail. The type X(→A)-Y(→B) is reported to be not so productive, but in Korean some evidence is found to support its productivity.

Key words: compounding, noun-noun compound, metaphorical compound, conceptual metaphor, meaning construction, conceptual combination, conceptual blending

강병창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주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425호 (130-791)
전화: 02-2173-3327
전자우편: kangbch@hufs.ac.kr

이 논문은 2013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31일 게재 확정함.